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Variables Associated with Peer Competence of Neglected Children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문혁준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Hyuk Jun Moo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variables associated with peer competence of neglected children. Participants were made up of 180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Neglected children's peer competence was measured by the Peer Competence Scale(Park & Rhee, 2001) and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neglected children's peer competence was partly associated with the child's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parenting styles and involvement strategy,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In particular, closeness in teacher-child relationship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both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leadership and sociability. Furthermore, a child's ability to regulate emotio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their peer competence in prosocial environments.

주제어(Key Words) : 소외아(neglected children), 또래유능성(peer competence)

Corresponding Author : Hyuk 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1 Yonkkok2-dong, Buchon, Ky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486 Fax: +82-2-2164-4485 E-mail: mhyukj@unitel.co.kr

* 이 논문은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I. 서론

맛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적 추세에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의 연령이 낮아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근의 유아는 수직적인 부모와의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인 또래와의 관계를 일찍부터 경험하게 되었다. 유아기에 경험하는 또래는 사회적 강화자인 동시에 모델이 되고, 상호간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되며, 정서적·인지적 자원의 제공뿐만 아니라 자기인식과 자아개념형성에 있어 정보의 원천이 된다(Shaffer, 2000) 특히, 초기 친구관계가 아동기 이후의 대인관계의 모델을 제시하며,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중단적 연구(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등을 통해 유아기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Hartup(1983)은 또래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이후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많은 선행연구(Hymel, Bowker, & Woody, 1993; Kupersmidt & Coie, 1990)들은 또래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성장 후에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로, 유아기 때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실패한 유아들은 이후에 비행이나 범죄적 행위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또래집단은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위계를 가지게 되며 또래집단 내에서 개개 아동은 또래지위를 가지게 된다. Coie와 Dodge(1983)는 또래지위를 인기아, 보통아, 거부아, 소외아, 양면아로 분류하였다. 인기아는 또래로부터 선호의 대상이 되면서 가장 적게 거부되는 아동이고 보통아는 인기아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다. 거부아는 다른 또래로부터 가장 많이 싫어하는 아동으로 지목되는 아동이며, 소외아는 다른 또래들에게 선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거부의 대상도 아닌 아동을 의미한다. 양면아는 또래로부터 선호되는 동시에 거부되는 아동을 의미한다.

또래지위는 한번 형성되면 지속되는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초기 또래지위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종전의 연구들이 거부당하는 유아와 소외되는 유아를 세분화하지 않고 연구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두 집단은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학급내 지위가 낮은 소외아는 정서적 불안정, 불만족한 생활을 하고 열등감, 학습의욕의 감퇴, 소극적 태도, 자기 도피적 또는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며, 수줍음을 잘 타고 위축된 성격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증 등의 내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김미라, 2001). 나아가 Hymel *et al.*(1993)과 임연진, 이은혜(1994)의 연구에 의하면 소외아 집단의 아동은 신체적, 학문적, 사회적 영역 모두에서 거부아 집단의 아동보다 더 부정적인 자아지각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들 특성은 위축행동과 직접 연관되어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보았다(신혜영, 1994). 김지영(2005)의 연구에서는 공격적이지만 상호작용이 활발한 배척아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적고 혼자 놀이를 하는 소외아가 스트레스의 수준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에서 친구 적응에 있어서도 소외아의 적응정도가 다른 또래지위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외아가 가지는 발달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소외아의 연구는 인간관계에서의 소외아의 특성(최광수, 2000)을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소외아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제한점을 가지며, 소외아는 특성상 문제행동을 가지적으로 드러내는 배척아보다 긍정적으로 지각될 수 있지만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이은미, 1995) 등 소외아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래유능성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Howes, 1989) 본 연구에서는 또래 유능성을 또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주도성, 또래에게 민감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친사회성, 여러 아동과 잘 어울리고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는 사교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또래유능성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개인 내적 요인의 하나인 기질은 개인의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의 특징적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Santrock, 2004).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적응을 잘하며, 긍정적인 성향을 지닌 쉬운 기질의 유아는 또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사회적으로 반응하며, 또래간 관계가 상호작용적이며, 협동적이다. 반면에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또래간에 문제가 많고, 행동적 문제와 사회화 문제를 더 쉽게 드러내는 등(Walker, Berthelsen, & Irving, 2001) 유아기의 기질 특성이 또래집단에서 유아의 사회적 위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Parker-Cohen과 Bell(1988) 또한 또래에게 수용되고 인기가 있는 유아들은 높은 적응성과 활동성을 보이며,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유아들은 낮은 적응성과 반응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다른 개인 내적 요인으로 정서조절을 들 수 있다(Katz & McClellan, 1997). 정서조절이란 내적 감정 상태 및 정서와 관련된 생리학적 발생, 강도, 지속기간을 조정하는 과정

으로(Thompson, 1994) Calkins(1994)는 정서조절을 통해 효과적인 대인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유아가 정서조절 방법을 배우고 발달시키는 것은 유아의 또래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임연진(2002)은 유아의 정서조절이 친사회적 행동이나 또래 유능성을 설명하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인기가와 보통지위의 유아가 거부된 유아에 비해 분노 등 감정의 통제를 더 잘 하며(Coie et al., 1990),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유아는 사교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밝히고 있다(Maszk, Eisenberg, & Guthrie, 1999).

한편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이 부정적 또래관계의 근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외적 환경 요인 중 하나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 왔다. 부모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가 온정적, 애정적, 수용적이며 일관된 행동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경우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더 친사회적이고 사교적이며 또래에게 잘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승희, 이은혜, 2004).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성과 관련이 있으며(문혁준, 2000), 어머니가 유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할 경우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며(김정아, 1989), 지도력이 높고, 불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윤정, 1999). 반면, 어머니가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할 경우 또래에게 복종적이고 공격적이며 타인에 대한 사려가 부족하고(김지신, 1996),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또래지위에서 인기가보다 고립아가 될 확률이 많았으며(문혁준, 2000), 또래관계에서 덜 주도적이고(박주희, 2001), 또래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선미, 2004).

근래들어 어머니의 일상적인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조언 및 지지, 감독행동 등을 또래관계 관리 전략이라 총칭하고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박주희, 2001), 또래관계 중개자, 감독자, 상담자로서의 부모의 기능은 또래관계를 촉진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화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양육행동과 구분된다(Pettit & Mize, 1993).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또래 상호작용을 감독하는 행동과(김희진, 1998) 또래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고(Bullock, 1989), 또래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하는 것(Laird, Pettit, Mize, & Lindsey, 1994) 등이 또래관계를 촉

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이 부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를 구할 수 있는 교사 역시 의미있는 타자로서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른 시기부터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게 되면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또래와 교사와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 시기에 교사와 유아의 관계의 질은 인지적, 사회적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Pianta & Walsh, 1996).

Pianta와 Steingberg(1992)는 유치원 교사와 대립적이고 갈등관계를 가진 유아들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친구들과의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기 쉽다고 보았으며, 교사와의 안정된 관계는 환경에 대한 유아의 적극적 탐색, 긍정적 정서, 다른 사람과의 유능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또래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Howes(1997)의 연구에서도 교사와의 따뜻함, 친밀함, 정서적인 안정감 등이 또래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됨을 보고하였으며, Birch와 Ladd(1997)는 교사와 유아간의 갈등이 친사회성과 부적상관이 있고 반사회적 행동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 그리고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 제시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상관관계를 통해 단편적으로 변인간의 관계성을 탐색해 보는 것에 제한되어 있으며, 또래지위와 관련지어 또래 유능성을 개인내·외 변을 포함한 총체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 시도는 거의 전무하다.

이와 같이 초기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아기의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어떻게 경험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파악에도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유아기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해 봄으로써 소외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가족과 또래체계간의 연계성과 유아와 교사의 관계에 대한 개념의 틀을 구체화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학령기에 접어들면 안정화되는 또래지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Ladd & Mize, 1990), 유아기는 또래지위의 부정적 순환주기를 바꾸기에 적합한 시기라 할 수 있으므로 소외되는 아동들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후 또래괴롭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정내의 문제나 사회적인 부담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외아의 또래유능성과 아동의 기질과 정서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관리전략, 그리고 교사-유아 관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180명과 학급의 담임교사 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보육시설 5곳을 임의 선정하였다.

만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취학 전기부터 또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며, 또래지위형성에 또래유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결과(Ladd & Hart, 1992)를 기초해 볼 때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취학 직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106명(58.9%), 여아 74명(41.1%)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50.6%)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형제수는 한명이 15.0%이었으며 두명이 57.2%, 3명 이상이 26.7%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연령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평균은 35.83세($SD = 3.83$) 아버지의 경우 평균은 38.14세($SD = 4.06$)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32.8%), 대졸(26.7%), 전문대졸(35.6%)이었으며, 아버지의 경우 대졸(39.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대졸(28.4%), 고졸(22.7%)이었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 전일제 취업(49.4%), 전업주부(39.4%), 시간제 취업자(11.1%)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는 연령은 30대, 경력은 5년 이상, 학력은 대졸이상으로 제한하였다.

2. 연구도구

1) 또래지위

아동의 또래집단 내 지위를 조사하기 위해 Coie와 Dodge(1983)의 또래지명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에게 또래의 사진을 제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각각 3명씩 지명하게 하고 함께 하기 싫은 친구도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채점은 사회성 측정검사 결과 각 아동이 교실내에서 받은 긍정적 지명수의 합과 부정적 지명수의 합을 각각 계산하여 학급 내에서 Z표준점수로

환산한 다음 긍정적 지명 점수에서 부정적 지명점수를 감산하여 사회적 선호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구한 점수를 이용하여 아동의 또래지위 중 소외아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또래지위 분류기준표는 <표 1>과 같다.

<표 1> 또래지위 분류기준표(Coie & Dodge, 1983)

인기아	: 1 ≤ 사회적 선호, 0 ≤ 사회적 수용, 사회적 거절 ≤ 0
거부아	: 사회적 선호 ≤ -1, 사회적 수용 ≤ 0, 0 ≤ 사회적 거절
소외아	: 사회적 영향 ≤ -1, 사회적 수용 ≤ 0, 사회적 거절 ≤ 0
보통아	: -1 < 사회적 선호 < 1, -1 < 사회적 영향 < 0
양면아	: 1 ≤ 사회적 영향, 0 ≤ 사회적 수용, 0 ≤ 사회적 거절

2) 또래유능성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사교성(5문항), 친사회성(5문항), 주도성(5문항)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성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아이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친사회성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 좋게 지내며,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도성은 또래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각 문항별로 교사가 대상 유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래관계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유능성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사교성 .82, 친사회성 .77, 주도성 .75 이었다.

3) 유아의 기질 측정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Thomas와 Chess(1977)에 의해 개발된 학령 전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어머니 질문지인 RITQ(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토대로 천희영(1993)이 개발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질 구성차원으로 밝혀진 4개 영역(활동성, 반응성, 생리적 규칙성, 적응성)의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에 대한 높은 점수의 의미는 활동성은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함을, 반응성은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그리고 강하게 반응함을, 생리적 규칙성은 수면이나 식사에 관련된 주기가 규칙적임을,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질검사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활동성 .68, 반응성 .69, 생리적 규칙성 .65, 적응성 .86 이었다.

4) 자기정서조절

본 연구에서는 유아 자신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경희와 김경희(1998)가 개발한 '유아 정서지능 평정 척도' 중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영역을 사용하였다. 이 영역은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심과 절제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다른 정서지능 영역에 비해 또래유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선행연구(Hubbard & Coie, 1994)에 기초하여 채택되었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는 8문항으로 '항상 그렇게 한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조절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70이었다.

5) 어머니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이 개발한 척도로 5개 하위요인(애정, 합리적 지도,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적극적 참여)의 총 35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애정은 '껴안아 주고 다독겨려 준다,' 합리적인 지도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가르쳐 준다', 권위주의적 통제는 '잘못하면 때려 준다', 과보호는 '교우관계나 유치원 생활에 대해 크게 염려한다', 적극적 참여는 '친구와 지낸 일에 관해 물어본다'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평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애정적이며 합리적인 지도를 하고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를 하며 적극적 참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수 및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애정(8문항) .87, 합리적 지도(6문항) .87, 권위주의적 통제(9문항) .74, 과보호(7문항) .73, 적극적 참여 .76(5문항)이었다.

6) 또래관계 관리전략

어머니가 유아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자주 하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Cohen(1989)의 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PIO)를 변안·수정하여 사용한 박주희(2001)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한 달 동안 자녀의 또래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개입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에 대해 '전혀 안함(1점)'부터 '일주일에 여러 번(6점)'까지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음을 의미한다. 문항수 및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중개·감독(12문항) .75 조인·관심(12문항) .86이었다.

7) 교사-유아 관계

Pianta(1991)가 제작한 유아-교사관계 척도(Student-

Teacher Relationship Scale)를 이진숙(2001)이 변안한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 12문항(예: 나는 이 유아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나누고 있다), 갈등 12문항(예: 이 유아와 나는 서로 힘들게 지내는 것 같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친밀감 .94 갈등 .91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서울시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의 만 5세 유아 20명과 어머니 20명, 그리고 해당 담임교사 2명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초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다섯 곳의 보육시설을 통해 만 5세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지위검사를 실시하였다. 소외아로 선정된 유아 200명을 대상으로 해당학급의 담임교사에게 가정통신문과 함께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전략, 유아의 기질검사 설문지를 각 가정에 배부하였으며, 설문지가 회수된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유능성, 정서조절, 교사-유아 관계에 대해 교사 평정을 실시하였다. 최종 어머니용 설문지와 교사용 설문지가 함께 이루어진 180부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Pearson의 상관계수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소외아의 또래유능성과 변인과의 관계

소외아의 또래유능성과 아동의 기질과 정서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관리전략, 그리고 교사-유아 관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또래유능성의 하위 변인인 주도성은 아동의 내적변인의 하나인 기질에서 적응성($r = .19, p < .05$), 어머니 변인의 양육행동에서 하위변인인 애정($r = .20, p < .01$), 권위주의적 통제($r = -.27, p < .001$), 과보호($r = -.33, p < .001$), 또래관계 관리전략에서 하위변인인 중개·감독($r = .17, p < .05$), 조인·관심($r = .19, p < .05$), 그리고 교사-유아관계의 하위변인인 친밀감($r = .28, p < .001$), 갈등($r = -.16, p < .05$)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기질에서 적응성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며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적 행동이 적고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에서 중개·감독과 조인·관심이 높고 교사-유아 관계에서 친밀감이 높고 갈등이 낮을수록 소외아의 주도성은 높다는 것이다.

〈표 2〉 소외아의 또래유능성

구 분	소외아의 또래유능성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
기질(아동)			
활동성	-.04	-.07	-.03
반응성	.00	.05	.05
생리적 규칙성	.06	.28***	.28***
적응성	.19*	-.06	.09
정서조절(아동)	-.07	.47***	.36***
양육행동(어머니)			
애정	.20**	.45***	.49***
합리	.15	.44***	.51***
권위주의적 통제	-.27***	-.23**	-.30***
과보호	-.33***	-.16*	-.23**
적극적 참여	.14	.25**	.30***
또래관계관리 전략(어머니)			
중개·감독	.17*	.22**	.37***
조언·관심	.19*	.05	.22**
교사-유아 관계			
친밀감	.28***	.40***	.65***
갈등	-.16*	-.49***	-.62***

* $p < .05$. ** $p < .01$. *** $p < .001$.

또래유능성의 하위변인인 친사회성은 아동 내적변인의 하나인 기질에서 생리적 규칙성($r = .28, p < .001$), 정서조절($r = .47, p < .001$), 어머니 변인의 양육행동에서 하위변인인 애정($r = .45, p < .001$), 합리($r = .44, p < .001$), 권위주의적 통제($r = -.23, p < .01$), 과보호($r = -.16, p < .05$), 적극적 참여($r = .25, p < .01$), 또래관계 관리전략에서 하위변인인 중개·감독($r = .22, p < .01$), 그리고 교사-유아관계의 하위변인인 친밀감($r = .40, p < .001$), 갈등($r = -.49, p < .0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기질에서 생리적 규칙성이 높고, 정서조절력이 뛰어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며 합리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적 행동이 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에서 중개·감독이 높고 교사-유아 관계에서 친밀감이 높고 갈등이 낮을수록 소외아의 친사회성은 높다는 것이다.

또래유능성의 하위변인인 사교성은 아동 내적변인의 하나인 기질에서 생리적 규칙성($r = .28, p < .001$), 정서조절($r = .36, p < .001$), 어머니 변인의 양육행동에서 하위변인인 애정($r = .49, p < .001$), 합리($r = .51, p < .001$), 권위주의적 통제($r = -.30, p < .001$), 과보호($r = -.23, p < .01$), 적극적 참여($r = .30, p < .001$), 또래관계 관리전략에서 하위변인인 중개·감독($r = .37, p < .001$), 조언·관심($r = .22, p < .01$), 그리고 교사-유아관계의 하위변인인 친밀감($r = .65, p < .001$), 갈등($r = -.62, p < .0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기질에서 생리적 규칙성이 높고, 정서조절력이 뛰어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며 합리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적 행동이 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에서 중개·감독과 조언·관심이 높고 교사-유아관계에서 친밀감이 높고 갈등이 낮을수록 소외아의 사교성은 높다는 것이다.

2.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영향력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독립변인들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였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인은 아동 기질의 하위 변인인 활동성, 반응성 생리적 규칙성, 적응성, 아동의 정서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 변인인 애정, 합리,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적극적 참여,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하위변인인 중개·감독, 조언·관심, 교사-유아 관계의 하위 변인인 친밀감, 갈등을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첫째,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의 하위 항목 중 주도성은 아동 기질의 하위 변인 중 적응성($\beta = .21, p < .01$),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변인 중 권위주의적 통제($\beta = -.18, p < .05$)와 과보호($\beta = -.24, p < .01$), 교사-유아의 관계 중 친밀감($\beta = .31, p < .01$)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6.2%였다. 즉, 아동이 적응성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권위주의적 통제가 적고 과보호적이지 않으며, 교사-

〈표 3〉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영향력

구 분	소외아의 또래유능성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
	β	β	β
기질(아동)			
활동성	-.03	.03	.04
반응성	-.11	.02	-.05
생리적 규칙성	.01	.19**	.13*
적응성	.21**	-.12	.04
정서조절(아동)	-.09	.28***	.14*
양육행동(어머니)			
애정	-.05	.19	-.04
합리	-.09	.07	.21*
권위주의적 통제	-.18*	.00	-.05
과보호	-.24**	.03	.02
적극적 참여	.06	.02	.08
또래관계관리 전략(어머니)			
중개·감독	.02	.03	.08
조언·관심	.15	.00	.11
교사-유아 관계			
친밀감	.31**	.03	.40***
갈등	.13	-.22*	-.11
$F_{값}$	4.19***	8.78***	17.31***
R^2	.26	.43	.60

* $p < .05$. ** $p < .01$. *** $p < .001$.

유아의 관계에 있어 친밀감이 높을수록 그 아동의 주도성은 높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의 하위 항목 중 친사회성은 아동 기질의 하위 변인 중 생리적 규칙성($\beta = .19, p < .01$), 아동의 정서조절($\beta = .28, p < .001$), 교사-유아의 관계 중 갈등($\beta = -.22, p < .05$)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42.7%였다. 즉, 유아의 생리적 규칙성이 높고 정서 조절력이 뛰어나며 교사-유아 관계가 갈등이 적을수록 그 아동의 친사회성은 높았음을 의미한다.

셋째,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의 하위 항목 중 사교성은 아동 기질의 하위 변인 중 생리적 규칙성($\beta = .13, p < .05$), 아동의 정서조절($\beta = .14, p < .05$),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변인 중 합리($\beta = .21, p < .05$), 교사-유아의 관계 중 친밀감($\beta = .40, p < .001$)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59.5%였다. 즉, 아동의 생리적 규칙성이 높고 정서 조절력이 뛰어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합리적이고 교사-유아 관계가 친밀할수록 그 아동의 사교성은 높았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외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을 통해 소외아는 아동의 기질에서 적응성이 높을수록 주도성이 높으며, 생리적으로 규칙적이며,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친사회성과 사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Walker *et al.* (2001)이 학령기에 비해 초기 아동기에는 아동 개인의 기질적 특징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식의 개인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한한 맥락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즉 또래에게 소외되는 유아는 낮은 적응성과 생리적 규칙성을 보여 또래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Parker-Cohen & Bell, 1988). 또한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또래에게 더 인기가 있으며(Hubbard & Coie, 1994)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보이고 정서를 잘 조절하는 유아가 또래와 더 잘 지내고(Putallaz, 1983), 타인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유아는 공격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또래에 의해서 더 많이 수용되는 등 또래관계에서 더 유능하다고 보고한 연구들(임연진, 2002; 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의 주장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그 원인으로 정서는 행동의 동기적 측면이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서 조절을 통해 자신이 즐겁고 행복한 아동은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동기화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며 권위적인 통제와 과보호적 행동이 적으며, 또래관계 관리전략에서 중개·감독이 높을수록 소외아의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합리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높고 또래관계 관리전략에서 조언·관심이 높을수록 주도성과 사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 수용적, 합리적 행동을 비롯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Domitrovich, 1998) 거부적이거나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또래거부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Mackinnon-Lewis, Rabiner, & Starnes, 1999)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모델로 삼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표상을 발달시키고(Putallaz & Heflin, 1990) 이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용하기(Domitrovich, 1998)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또래관계에 대한 중개·감독과 조언·관심 전략 역시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와의 접촉기회를 제공하거나 상호작용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및 유아와 함께 또래접촉 기회를 계획하는 등의 조언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Bhavnagri & Parke, 1991; Ladd & Hart, 1992)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김윤경(1998)의 연구에서 인기집단은 소외집단에 비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덜 느끼고 먼저 말을 걸거나 칭찬을 하는 등의 사교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려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 기술을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중개·감독, 조언·관심을 보인다면 자녀의 또래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여기서 주의할 점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맥락 밖에서 어머니가 제공하는 조언 및 관심은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행해지는 개입에 비해 덜 감정적이고 이성적이므로 유아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Lollis, Ross, & Tate, 1992) 지나친 간섭은 사회적 위축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Cohen, 1989)를 고려할 때 지지적이면서 간섭하지 않는 형태의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교사-유아 관계에서는 친밀감이 높고 갈등이 적을수록 소외아의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유아는 또래관계에서도 사교적이고 친사회적이며 주도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혜영(1998)의 교사-유아 관계가 사회적 능력과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교사-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유아들은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또래와 적응을 잘 하며, 또래나 교사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Copeland *et al.*(1997), LaFreniere와 Sroufe(1985)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넷째,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주도성의 경우 아동의 기질 중 적응성, 양육행동 중 권위와 과보호, 교사-유아의 관계 중 친밀감이었으며, 친사회성과 사교성의 경우 아동의 기질 중 규칙성, 아동의 정서조절이었으며, 교사-유아의 관계에서는 친사회성은 갈등인데 반해 주도성과 사교성의 경우는 친밀감이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주도성과 사교성은 친밀감이었으며 친사회성의 경우는 아동의 정서조절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력이 높고 생리적으로 규칙적이며 정서조절력이 뛰어난 아동은 평소 성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성인과의 긍정적 관계 경험으로 인하여 또래와 같은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하게 행동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과잉보호가 자녀의 감정표현을 억제하고 부모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조장함에 따라 또래집단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충분히 가지지 못함으로써 또래로부터 고립되는 관계를 초래할 수 있음이 문혁준(2000)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부연 설명하면, 과보호하는 부모의 아동은 좌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처하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성인에게 의존적이 된다는 주장(Putallaz & Heflin, 1999)과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고 직접적인 명령이나 금지를 많이 가하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아동은 분노와 좌절을 겪게되고 이러한 아동은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Dekovic & Janssens, 1992)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또래유능성에 있어 아동 개인이나 어머니 특성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가 학령 전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대해 더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사와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유아일수록 안정된 사회성을 보이며 또래 관계에서도 안정된 관계를 형성한다(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는 연구결과와 유아가 교사와 친근감이 높을 때는 유아행동에서 친사회성이 높게 나타나며, 갈등이 높을수록 유아행동에서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고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전경아, 2003)를 지지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교사와 보다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도모하고, 보다 긍정적인 또래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은주(1996)의 연구에서는 교사-유아의 관계에서 교사의 제한적 언어반응이 유아의 또래선호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았다. 즉 소외되는 유아에게는 권위적 방법으로 통제하는 교사의 언어가 많았으며 거부당하는 유아보다 반응 빈도가 훨씬 낮아 또래뿐 아니라 교사에게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애정적이어야 하고 또래접촉의 기회를 자주 제공해주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관심과 조언을 해주되 유아 개개인이 지닌 정서조절력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관에서는 친밀한 교사-유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더 나아가 또래로부터 소외되는 유아의 경우에는 부모-유아와 교사-유아 관계에서의 긍정적 차원이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교육이 또래관계에서 부적응을 나타내는 아동의 상담과 치료에 궁극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임상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임의 표집에 의해 선정된 특정지역의 보육시설에서 선정된 소외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계층의 소외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반복 연구를 통해 소외아동과 관련된 특성들이 더욱 심도 있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또래지위를 평가하기 위해 또래지명법을 실시하였다. 또래지명은 아동의 시각에서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성인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교사 평정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며, 또래유능성과 교사-유아관계 모두를 교사평정에 의해 실시함에 따라 편향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 자기 보고 및 교사와 또래평정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을 살펴보고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의 방향을 규명하고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 자신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 정서지능 평정 척도' 중 '감정의 조절 및 충

동역제' 영역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척도를 필요에 따라 어느 한 요인영역만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빈도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와 함께 질적인 측면의 고려도 필요하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동시에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변인으로 기질, 정서조절,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전략, 교사-유아 관계 등을 살펴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목표와 가치 등 인지적 요인을 변인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다양한 방식과 교사-유아와의 관계가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는 소외아의 또래유능성의 향상을 위해 아동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기보다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계획하기 위해 부모를 비롯한 교사교육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 참고문헌

권윤정(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경희, 김경희(1998).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2), 31-48.
 김미라(2001). 소외아의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TA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선미(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윤경(1998). 인기, 무시, 배척 집단의 사회기술 및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아(1989).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지영(2005). 또래지위에 따른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 및 학교생활 적응 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김희진(1998).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의 지도/감독행동, 그리고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45-53.
 문혁준(2000). 또래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민혜영(1998).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과 개인 내적변인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 전략.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주희, 이은혜(2001).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손승희, 이은혜(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67-177.
 신혜영(1994). 또래의 위축행동에 대한 아동의 개념 및 정서추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은미(1995).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따른 비인기 아동집단의 자아지각과 또래지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주(1996). 또래지위에 따른 교사의 언어적 반응과 그에 따른 유아의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 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임연진, 이은혜(1994).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2(1), 119-131.
 전경아(2003). 유아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경화, 도현심(2005). 거부아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아동학회지**, 26(4), 263-278.
 정지나, 민성혜, 김지현(2008). 또래 배척과 관련된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학회지**, 29(4), 135-146.
 천희영(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17-34.

- 최광수(2000). Gestalt 집단활동이 소외 아동의 학급 환경 적응 능력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havnagri, N., & Parke, R. D.(1991). Parents as direct facilitators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Effect of age of child and sex of parent.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Relationships, 8*, 541-549.
- Birch, S. H., & Ladd, G. W.(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Psychology, 35*(1), 61-79.
- Bullock, J. R.(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anagement of 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263-269.
- Calkins, S. D.(1994). Origin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 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 59, No. 240).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ohen, J. S.(1989).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 Coie, J. D., & Dodge, K. A.(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3), 261-282.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peland, M. J., Denham, S., & DeMulder, E.(1997). Q-Sort Assessment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in the preschool.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8*(1), 27-39.
- Dekovic, M., & Janssens, J. M. A. M.(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Domitrovich, C. E.(1998).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child perceptions of parents and pe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
- Hartup, W. W.(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New York: Wiley.
- Howes, C.(1997). Teacher sensitivity, children's attachment and play with pe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8*(1), 41-50.
- Howes, C., Phillips, D. A., & Whitebook, M.(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 449-460.
- Hubbard, J. A., & Coie, J. D.(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
- Hymel, S., Bowker, A., & Woody, E.(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 879-896.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Katz, L. G., & McClellan, D. E.(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Vol. 8.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 Kupersmidt, J. B., & Coie, J. D.(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dd, G. W., & Hart, C. H.(1992). Creating informal play opportunities: Are parents' and

- preschoolers' initiations related to children's competence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79-1187.
- Ladd, G. W., & Mize, J.(1990). A cognitive social learning approach to social skill training with low status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80-397.
- LaFreniere, P., & Sroufe, A.(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on the preschool: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6-69.
- Laird, R. D., Pettit, G. S., Mize, J., & Lindsey, E.(1994).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peers: Contributions to competence. *Family Relations*, 43, 425-432.
- Lollis, S. P., Ross, H. S., & Tate, E.(1992). Parents' regulation of children's peer interactions: Direct influences. In R. D. Parke & G. W. L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pp. 255-28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ckinnon-Lewis, C., Rabiner, D., & Starnes, R.(1999). Predicting boys' social acceptance and aggression: The role of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boys' beliefs about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32-639.
- Maszk, P., Eisenberg, N., & Guthrie, I. K.(1999). Relations of children's social status to their emotionality and regulation: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5(3), 468-492.
- Parker-Cohen, N. Y., & Bell, R. Q.(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 Pettit, G. S., & Mize, J.(1993). Substance and style: Understanding the ways in which parents teach children about social relationships. In Duck, S.(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es series*. Newbury Park, CA: Sage.
- Pianta, R. C.(1991).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A.
- Pianta, R. C., & Steinberg, M.(1992).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 of adjustment to school.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7, 61-80.
- Pianta, R. C., & Walsh, D.(1996). *High-risk children in the schools: Creating sustaining relationships*. NY: Routledge.
- Putallaz, M.(1983). Predicting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from their behavior. *Child Development*, 54(6), 1417-1426.
- Putallaz, M., & Heflin, A. H.(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89-21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trock, J. W.(2004). *Child development*(10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 Shaffer, D. R.(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4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Thomas, A., & Chess, S.(199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hompson, R. A.(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 Walker, M., Berthelsen, D., & Irving, K.(2001). Temperament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Sex and social status differences. *Child Study Journal*, 31(3), 177-192.

접 수 일 : 2008년 9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8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2일